## 갑상선 질환의 증상과 치료

# 5%가 악성…수술외엔 치료법 없어

〈암〉

직장인 김모(여·38)씨는 최근 체중이 급격히, 늘 기분이 우울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해서 병원을 찾았다가 갑상선이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갑상선, 요즘은 갑상샘이라고도 불리는 이 기관은 목의 앞쪽 이른바 아담의 사과라 불리는 목 앞의 튀어나온 바로 아래에 자리하고 있는 15~20g 정도의 무게를 지닌 나비 모양의 내분비기관으로 인체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중요기관이다.

갑상선이 하는 일과 질환의 종류 및 원인·치료방법에 대하여 알아본다.

수개월째 체중감소가 진행되고, 쉽게 피로를 느끼는 등 이상 증세를 보이는 여성환자가 건강관리협회에서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하고 있다.

### 자각 증상 거의 없어 평소 정기검진 중요

### 수술후 갑상선호르몬제 평생 복용해야

◇**갑상선의 기능**=갑상선은 $T_3$, $T_4$라는 두 가지의 호르몬을 분비한다. 여기서 3, 4라는 숫자는 갑상선 호르몬 속의 요오드가 3개 들어 있느냐, 4개 들어 있느냐를 가리키는 표시.

갑상선 호르몬은 태아의 성장, 발육, 특히 뇌와 뼈의 발육에 필수적인 일을 한다. 만일 태아기 또는 성장기에 갑상선 호르몬이 모자라면 키가 작고 기능이 낮아진다.

또한 갑상선 호르몬은 몸 안의 여러 대사를 섬세하게 조절해 만들어진 에너지가 제대로 쓰이게 하는 역할을 한다. 즉, 심장의 박동을 증가시키고 스트레스에도 적절히 대응하게 되며, 적혈구 생성도 늘려 충분한 산소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근육과 뼈의 기능도 좋게 유지한다. 또한 다른 호르몬들이 올바로 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 준다.

이러한 갑상선 호르몬의 기능이 지나쳐 '기능항진'이 되면 심장이 마구 뛰고 대사가 지나쳐 더위를 못 참게 되고 밥맛은 좋아져 먹기는 많이 먹는데 몸무게가 줄어든다. 반대로 기능이 저하되면 더위를 못 참고 식욕도 줄고 기운도 빠져 무력하게 되는 증상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갑상선 질환의 종류**=갑상선 혹, 갑상선 종, 갑상선 종양이라고 부르는 '결절'은 하나에서 여러 개, 아주 작은 것에서 어른 주먹만한 것까지 다양하다.

다행히 갑상선 결절이 악성일 비율은 약 5% 정도이고 대개는 양성 결절인 경우가 많다.

양성 결절은 미용상의 문제일 뿐이지 그냥 두어도 아무런 해가 없다. 더러 크기를 줄이기 위해 갑상선 호르몬을 투여하거나, 드물게는 수술을 하기도 한다.

단 양성 결절이라고 1차 진단이 붙은 뒤, 호르몬을 투여하고도 더 커지거나 하면 양성 또는 악성의 판단을 다시 해야 할 경우가 드물게 있다.

갑상선에 문제가 있어도 기능 상태만 정상으로 조절되면 정상 임신, 분만이 가능하다. 더구나 갑상선 질환이 기형아를 일반의 경우보다 더 자주 낳게 된다는 증거는 없다. 다만 젖을 통해 약품이 배출될 수 있으므로 투약 중에는 수유를 금하는 것이 좋다.

가끔 해조류 (미역, 다시마 등)가 갑상선에 좋다 안 좋다고 하는데, 큰 의미는 없다. 매일 엄청난 양의 해조류를 먹기 전에는 전혀 상관이 없다. 굳이 갑상선 질환에 도움이 되는 식사라면, '골고루, 알맞게 먹는 것'이다.

◇**갑상선암**=갑상선이 부분적으로 커져 혹이 생기는 것은 전인구의 3~5% 내외에서 발견되는 매우 흔한 질환이다. 대부분의 갑상선 결절은 양성이며 악성(암)인 경우는 5% 이내로 적다.

갑상선 결절이 있는 경우 갑상선암의 가능성을 확인해 악성인 경우라면 즉시 수술을 해야 한다. 그러나 양성 갑상선 결절은 기능은 거의 정상인 경우가 많고 결절이 커져서 주변 조직에 이상을 일으키지 않는 이상 단지 미용상의 문제일 뿐이어서 결절 자체가 건강에 해를 주는 경우는 없다.

갑상선의 결절이 있는 경우 자각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어 대부분의 갑상선 결절은 우연히 발견된다. 대부분의 결절은 양성이며 양성 결절은 다른 곳으로 퍼지는 일이 없고 자라나는 경우에도 서서히 자라나기 때문이다. 설사 갑상선 결절이 암에 의한 경우라 하여도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나 자각 증상이 나타난다.

갑상선암의 수술 시에는 암이 있는 부위만을 떼어내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갑상선 전체를 떼어내게 된다. 크기가 매우 작고 갑상선 안에만 국한되어 있는 유두선암이라면 암이 있는 쪽만을 제거하는 수술로도 충분하다.

수술로 갑상선을 완전히 제거하게 되나 극히 적은 양의 갑상선 조직은 남아 있게 된다. 이를 완전히 제거하려면 수술의 합병증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정상 조직이 남아 있다고 해도 여기서 다시 암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또 수술시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암 조직을 제거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수술 후 방사성 요오드를 투여해 이를 같이 파괴하면 재발을 줄일 수 있다.

갑상선 암 환자는 수술 후 갑상선 호르몬제를 일생 복용하여야 한다. 수술로 갑상선을 제거했으므로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갑상선기능저하증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또한 분화된 갑상선 암의 경우 암세포의 성장을 갑상선 호르몬이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갑상선 호르몬제의 사용은 암의 재발을 줄이고 이미 재발한 경우에도 암의 진행을 어느 정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물론 갑상선 호르몬제를 일생 동안 복용하는 데에 따른 부작용은 없다.

〈도움말=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스마트폰 원격 진료시스템 구축

### 광주 첨단종합병원, SK텔레콤과 업무협약 체결

광주 첨단종합병원(원장 정성헌)이 SK텔레콤과 손잡고 호남지역 병원 최초로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진료 시스템을 도입한다.

그 동안 첨단종합병원은 진료 편의와 서비스를 최상으로 유지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6시그마를 도입하고 환자 중심의 고품격 서비스를 위해 PACS(의료영상 저장 전송시스템), PET(암진단장비), EMR(전자의무기록시스템), OCS(처방정보 전달시스템)등을 도입해 Chartless, Slipless, Filmless, Paperless등 디지털 첨단병원의 면모를 구축해왔다.

이번 SK텔레콤과의 MOU를 통해 첨단병원은 병원 내에 개방형 WIFI를 설치해 병원 임직원 뿐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 내원객들이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통해 무선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병원 임직원에게는 최신 스마트폰을 공급해 업무효율 향상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진료시스템 구축인데 이 어플리케이션은 기존의 병원 시스템인 EMR, OCS, PACS등을 스마트폰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구현하고 있어 이를 통해 병원 및 전국 어디서나 병원 정보망에 접속해 환자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m-Hospital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향후 태블릿PC(갤럭시탭)를 이용해 OCS시스템과 연계해 PACS, EMR등 의무기록 열람을 병상에서도 가능하게 하고 수술 및 시술동의 시 환자가 움직이지 않고 의사로부터 의무영상 자료를 보면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정성헌 첨단병원장은 "이번 SK텔레콤과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 병원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시엘병원 개원 10주년 사진 공모전

### '새 생명 탄생' 주제…내달 23일까지 접수

시엘병원이 '개원 10주년'과 임신성공 3000례를 기념해 사진 공모전을 갖는다.

사진 공모전 주제는 '새 생명 탄생'이다.

소재는 시엘병원에서 불임 극복 과정을 거쳐 임신성공(자연배란유도, 인공수정, 시험관아기시술 포함)후 분만한 경우에 해당하며, 예쁜 아기의 성장사진은 물론 행복한 가족 사진이면 어떠한 경우라도 공모가 가능하다.

공모 당선작품과 불임증 극복 사연은 시엘병원을 찾는 많은 불임부부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로 활용된다.

수상자는 창조상 1명에게는 70만원의 상금과 상패가 수여되고, 사랑상 2명은 50만원 상금과 상패, 탄생상 5명에게는 30만원과 상패가 수여된다. 공모전에 참여한 모든 가족에게도 10주년 행사 기념품을 증정하게 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9월23일까지이며, 우편(광주시 서구 광천동 13-21) 및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수상작 발표는 9월말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clhospital.com)를 참조하면 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밝은안과 21 윤길중 원장

## 유럽 백내장학회 주제발표

밝은안과21 윤길중 대표원장은 다음달 2일부터 8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28차 유럽 백내장 굴절학회 및 망막학회'에 참석해 주제발표를 한다.

윤 대표원장은 이번 학회에 참석해 '다빈치 펨토 레이저와 M2 미세각막절삭기를 이용한 라식수술 결과 비교'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주제발표에서 윤 대표원장은 웨이브프론트 옵티마이즈 라식수술 후 시력의 질에 영향을 주는 수차의 변화는 다빈치를 이용한 환자에서 시력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99% 이상이 1.0 이상의 시력을 보였고 42%에서 1.2 이상의 시력을 보인 임상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윤 대표원장의 임상결과 및 주제 발표는 다빈치를 이용한 웨이브프론트 옵티마이즈 방식의 수술이 안정성과 시력의 만족도를 증가시킨 점을 입증한 것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 전남도 박람회 상표 출원

전남도가 오는 10월 장흥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를 새로운 지역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박람회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허청에 출원한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의 상표는 전남지역의 푸른 자연과 맑은 정신, 이곳의 환경 속에서 사는 인간을 상징하고 있다.

상표의 녹색은 이 지역의 청정자연을 의미하고 청색은 통합의학의 세계화를, 빨강색은 장흥 천관산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흰색 바탕은 인간을 의미한다.

통합의학은 현대서양의학을 기본으로 한방요법, 보완요법이나 대체요법 중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법을 선택해 현대 의학적 치료와 병행·접목함으로써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의학의 신개념이다.

올해 '2010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는 오는 10월 29일부터 11월 7일까지 장흥 천관산 일원에서 열린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부작용 거의없이 피부 재생, 탄력 살리고 주름 개선

비수술적 성형, '히알루론산 시술'

김 영 갑 성형외과의원

☎ (062) 227-3777 무등극장 앞